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0년 7월

선교편지 제 133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15일부터 각종 봉쇄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거리는 조금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혹독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집에만 머무르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간 통행금지와 가정별 격일제 외출은 아직도 유효하고, 학교도 여전히 굳게 닫혀있고,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는 여전히 모든 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모든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봉쇄 완화 조치로 주중에는 주거지로부터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여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로 곳곳마다 설치된 임시 검역소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음을 나타내는 각종 증빙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봉쇄가 완화된 필수 업종에 종사한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또한 저희와 같은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이 건강증명서는 바이러스 검사나 혹은 체온이라도 측정하고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자와 비대면으로 건강 문진표를 작성한 이후에 발급받은 것입니다. 단지 보건소만 방문했을 뿐인데, 이 건강증명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바이러스 백신보다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진 건강증명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디고스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는 3군데의 임시 검역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검역소에 이르면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려 체온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약이 담긴 발판을 지나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외관을 소독약으로 빠르게 도포를 한 이후에야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 검문소마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불평없이 이러한 조치들을 묵묵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건강증명서를 지참하고 있는 차량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긴 차량 행렬과 관계없이 옆길로 빠져 나와 검역소 직원에게 창 밖으로 건강 증명서를 보여 주기만 하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이 건강증명서는 동승한 승객뿐만 아니라, 차량까지도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함을 증빙하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완화된 조치로 인해서, 거의 매일 교회가 있는 디고스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하게 보였던 거리가 모두 저를 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선교지에 새롭게 부임을 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선교 엔돌핀이 샘 솟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다시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맘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2.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찬 414)**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거의 마무리 할 즈음에, 지난 3월 중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여 갑작스럽게 공사를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준공 검사를 앞두고 화재 경보 장치 설치와 성전 마무리 작업을 할 예정 이었는데, 사용하던 연장과 자재들은 모두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흘러, 봉쇄가 해제 되자마자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아팔라야 교회 건축 현장 입니다.

아팔라야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 혹시 밤에 자재를 도난 당하지 않을까 하여 주 7일 야간 경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거의 무방비로 3개월간 방치 했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만에 교회 문을 열고 들어 가보니, 모든 자재와 연장들은 그대로 있고, 잘 건조된 새 페인트 냄새가 반겨 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아팔라야 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한 끝에 준공 검사를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치고, 고대하던 준공검사와 교회 사용 승인을 거의 2주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자재들을 정리하고, 각종 집기와 부착물들을 준비하는 일만 남아서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 중에 이 지역에 24시간 이상 집중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이 잠기고, 마을 주민들은 줄지에 수재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진을 극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삶은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을을 방문해 보니, 집들은 형편없이 망가지고 온통 진흙 밭이 되었습니다.

아팔라야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침수가 있었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전 바닥까지만 물에 잠겼다가 빠져 나가서 주변에 비하여 피해가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교회를 설계할 당시 교회 Level을 80 cm로 상당히 높인 까닭에 침수의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 성전 바닥이 거의 하루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건조가 됨에 따라 계속되는 균열로 인하여 바닥 공사를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완공을 앞두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얼마나 안타



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봉쇄 기간 중에 발생하여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발생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작업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같은 상황에도 바닥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좋은 타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예배가 예전과 같지 않고, 선교가 예전과 같지 않은 때에, 아팔라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창 6:18)

 아직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매주 전교인 심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주의 사랑으로 이곳의 주식인 쌀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사들고 매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문하는 가정에 오래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가능하면 집 밖에서 감사함으로 위로하고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렵지만, 단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들 밝게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만, 한결같이 눈물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속히 풀어 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4)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